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2년 1월 18일(일) 제705호 창간 196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권 주간 변해철 편집장 김해형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0(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53 (울진) 335-3-4117 서울기 중대문구 의문로 272 경기도 동원시 모현면 황산리 산 89

웃습니다.
더 크게 웃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는 여인이 웃습니다.

상복은 살아남은 자의 죽음 을 애도 하는 표식이고,
웃음은 살아남은 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 입

50년만에 이뤄낸 여야정권교체의 권희도 잠시
IMF의 '질' '이' 물려옴 '다.
그러나 우리는 웃습니다.
근거없는, 살인 허황된 웃음이 아닙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
군부독재와 미국의 존재를 알린 80년 광주
5.18 개헌을 일궈낸 87년 6월

리의 기쁨을 알기에
IMF의 '국상' 을 당한 오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웃은 '상복'이지만 당당하게 웃습니다.

인물 : 박예준(동양 · 태극 3)

제작 : 사진부

불황한파! 학내에서 따뜻하게

학내특강, 미용실, 안경점 등... 일석이조 효과



방송 학내에서 학생복지위원회의 주최로 여러가지 특강이 열리고 있다. 위 사진은 TOEIC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이러바이트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신입생원서마감인 4일(일) 본보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답한 내용이다. 수험생들도 일상생활에서 IMF 경제위기를 직접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방학을 이용해 영어회화, 컴퓨터 등을 배우고자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불황으로 학원비가 가계에 주는 부담

은 더욱더 커졌다. 그렇다면 어려운 이시기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그 답이 있다. 바로 학교특강이다.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와 용인배움터 학생복지위원회(학복위)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특강을 주최한다. 보통 사설학원의 수강료가 7~8만원인데 비해 배움터의 수강료는 2~3만원 정도이다. 혹자는 수강료가

싸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다. 이에 대해 학복위와 김현동(서울·영여 4)은 "시설면에서 사설학원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강사진만큼은 국내 최고로 사설학원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더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187개 강좌가 마련된 이번 동계특강에서는 한 강좌당 평균 40~50명의 학생이 강좌를 듣고 있으며 다른 학교에서 들오 오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편 방송 특강강좌가 없는 용인배움터에서는 98년 도부터 신설강좌를 마련한다. 기존의 ELS(사사영사)특강, 컴퓨터특강, 운전면허특강 등을 강화하고 있던 것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TOEIC강좌를 줄이고 인터넷특강, PC특강, 메이크업특강 등을 신설하여 재학생이 맞이한다. 이번 특강을 준비하는 상황은 만기(영·통·아·프) 3구은 "건강한 대학문화로 기치로 학내 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많은 호응을 관심을 가지고 수강했으면 좋겠다"며 취지를 밝혔다. 학교특강에서 얻은 수익금은 학생수업 재작, 추석귀환비미션, 장학금, 배부수기행 등 학생복지에 쓰인다. 바로 수익금이 학생들에게 재투자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알뜰한 생활을 위해 마련된 학내 복지시설에는 이발소, 미용실, 서점, 매

점 등이 있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사립대 건물 지하1층에 이발소와 미용실이, 교수회관 1층에 구내서점과 전자매장 등이 위치해 있다. 서점은 시, 소설, 에세이 등 일반서적을 10%할인 해주고 있고 매점은 5~10%정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상품들을 판매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 이발소와 미용실은 시중보다 30~40%정도 한 편이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에 대해 주인 박문규(45)씨는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장소 문제도 있었지만 값이 싸니까 찾지 않는다는 생각을 학생들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학생들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해 이발사를 늘리고 인테리어와 서비스 측면을 보강하려고 한다"고 개선택을 밝혔다. 용인배움터의 경우도 후북관 4층에 서점, 문구점, 안경점, 이발소, 미용실 등이 밀집되어 있다. 학내 이발소, 미용실은 생각보다 이용률이 높고 1)구은 "평소 쓰고 공간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고 말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학내를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단지 학교에 있으니까 별일 없겠지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부담없이 질문은 학교관과 복지시설을 이용 하는 것이 경제생활에 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일 것이다. 이승준 기자

새내기 바로알기 - 동아리

동아리, 공동체 삶 배우는 공간



대학은 그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고 시대를 대변하는 정의와 진리를 지닌 곳이다. 이러한 대학의 성격은 시대와 공간적인 차이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상품화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상품화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간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효가 필요하다. 그 수효는 대동단일 이윤으로 각 개인을 분개성화 시키면서 일정한 행동양식과 일정한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같은 신발로 모든 사람이 포장되는 것이다. 대학의 문화도 이러한 시대의 수요 요구에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수요에 꼭 맞는 기능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취업에 위한 훈련 소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인이 자신의 꿈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동아리를 생각하는 것은 그 공간에서의 대학인 나름의 개성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동아리는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진 무리들의 배라는 뜻을 지닌 순수 우리 말

의 배라는 뜻을 지닌 순수 우리 말이다. 동아리는 취미나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임을 이루고 볼 수 있다. 이런 동아리는 개인의 자아발전 및 개인적인 생활을 풍부히 할 수 있는 장이다. 동아리가 대학에서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학과 수업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아리의 활동은 학과와 공간적인 차이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상품화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상품화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달려나간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효가 필요하다. 그 수효는 대동단일 이윤으로 각 개인을 분개성화 시키면서 일정한 행동양식과 일정한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같은 신발로 모든 사람이 포장되는 것이다. 대학의 문화도 이러한 시대의 수요 요구에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수요에 꼭 맞는 기능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취업에 위한 훈련 소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인이 자신의 꿈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동아리를 생각하는 것은 그 공간에서의 대학인 나름의 개성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외대문화는 창조하는 주인공들은 외대 동아리인들이다. 다양한 동아리의 활동 속에서 진정한 대학인의 활동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착시키는 몫은 바로 동아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상진

(동아리 연합회장, 서양·불어 3)

대학·사회문제 고민하며 즐기는 한마당



대동제의 기획은 대학과 사회 담판정세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대학생활이란 떠오르는 것: 동아리, MT, 축제...

이중에서 새내기들은 대학축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이 축제때 대해 웃음을 흘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대부분의 새내기들은 '나도 그렇게 축제를 즐겨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본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축회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젊음과 낭만을 발산하는 만능의 자리이다'라고 응답한 수험생이 62%에 달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대학축회는 TV에서 보던 환상적인 자리인가? 소비문화적으로 외국 포장된 대학축회를 상상하며 5월

의 대동제를 맞게 되는 새내기들은 대부분 놀라거나 실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학축회는 젊음과 낭만도 찾을 수 없는 시시한 자리일까? 우선 외대의 축제 역사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자. 외대축제의 기원은 64년 개교 10주년 기념 '제1회 외대축제'이다. 이후 외대의 문화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축제라는 지리로서 고민해오던 중 67년 '제1회 13주년 기념 '인속발표회'라는 세계(인속)예술제의 전신에 등장하여 외대의 대표적 인 축제로서 자리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행사위주의 기획과 뚜렷한 대학 문화에 대한 인식없이 진행되어 온 외대의 축제는 80년 광주학생운동 30주년 기념학생의 민족·민중 해방정신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도들-통해 스스로 역사의 중심에 서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문화와 오락 비중이 대부분이던 인속축제가 공동체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내는 의의전환의 장으로, 대학문화의 꽃을 피우는 자리로, 전통을 인식하

고 재창조하는 자리로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권리를 받던 학교단위 체제에서 학생들의 자주적 대동조직인 학생회와 부하조직인 학내, 외대문화에 등장한 대동축회는 학생 스스로 창조적인 대학문화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85년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매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대표적 대학축체인 '대동제'가 시작되는 해이다. '대동'이란 한문 한자면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대동제에서는 80년대의 반목제 민주주의와 통일이라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대동제에 담아내는 것일지는 아닐지라도 동아리 공전, 민족놀이 마당, 주민과의 한마당 등의 행사가 마련되었다.

오페라 연출가인 문호근씨는 "축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획이다. 크든 작든, 축제는 어떤 일정한 방향, 일정한 조직방식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했다. 대동제에서 기획은 먼저 대학

과 사회의 담판 정세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 97년 용인배움터 대동제는 당시 김영삼 정권 퇴진 분위가 국민들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얻어내며 미국과 정권교체 대한 허심상을 폭로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대동제로 중심을 두었다. 특히 서울배움터 대동제의 통일 노래합창단이나 주민학살배우마당 같은 행사는 대동제가 목표로 하는 학생 스스로의 주체적인 문화 향유와 공동체 문화 창출의 의미에 맞는 뜻 깊은 행사로 매년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대동제로 대표되는 대학축제는 소비나 오락문화가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때 대학과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그에 따른 대안을 찾아나가는 한마당이다. 또한 그에 앞 서 대학축제는 학생들이 주인공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 매김되고 있다. 김민식 기자

<새내기 설문조사 결과>

대학에서 '동아리'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취미활동을 하는 곳 33%
- ② 자기 발전에 필요한 분야를 서로 공유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곳 26%
- ③ 좀더 인간적인 만남을 통하여 올바른 인간관계를 실현하는 곳 36%
- ④ 공강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활동하는 곳 5%

제2전공 신청서 접수

'제2전공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 래

1. 접수 기간: 1998. 2. 4(수) ~ 2. 5 (목) 2일간

▶ 단, 전과 탈락자는 2. 20(금) 2. 23(월) 양일간 소속 대학 교학과에 제출

2. 신청서 세부 및 접수처 : 소속 대학 교학과

3. 매정 발표 : 1998. 3. 2(월)

1998. 1.

교무처장

'98 제1학기 수강신청 안내

1998년도 1학기 재학생의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재학생은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아 래

- 1. 수강기간: 1998. 2. 9(월) ~ 2. 11(수)
- 2. 신청장소: 서울캠퍼스 학과, 용인캠퍼스 교무처
- 3. 수강신청 OMR 및 강의시간표 : 각 학과장실에 비치 배부함.
- 4.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현재까지 취득한 교과목 및 취득학점 등을 확인하고, 강의시간표의 '수강신청 지침'을 숙지한 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98학년도 전과원서 접수 실시

본 대학교의 '전과규정'에 의거 1998학년도 전과원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기간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 래

- 1. 접수기간 : 1998. 2. 3(화) ~ 2. 4(수)
- 2. 신청장소 : 서울캠퍼스 학과, 용인캠퍼스 교무처
- 3. 안내사항 : 전과자격, 전과기준, 전과 신청일정 등 세부사항은 '전과신청 안내'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람.

1998. 1.

교무처장

1998학년도 전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전과자격 : 제2학년 전과대상자로서 34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 3.50이상인 재학생.

- * 다음의 경우는 전과할 수 없음
- 복수학과에 이중 지원한 자(이중지원자는 학과별 전과신청의 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3개학기 이상 재학한 자
- 휴학중인 자 (단, 복학예정자는 전과신청 기간에 복학신청 후 지원 가능함)
- 비사범대학에서 사범대학으로 전과
- 입학당시 동일모집단위(계열·학부)내 전과
- 캠퍼스간 전과

2. 선발기준 : 지원학과에서 선발기준을 정함 (학업성적 평점평균, 평점사항, 면접 등을 포함할 수 있음)

3. 전과신청 일정 (전과 전형일의 시간은 학과에서 정하여 고지함)

구분	일시	장소
전과원서접수	1998. 2. 3(화) ~ 2. 4(수)	교무과
학과별 전형	2. 12(목)	지원학과
전과확정 발표	2. 20(금)	교무과

4. 지원 방법

가. 구비서류 등 : 전과원서, 성적증명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사진 1매 (3cm×4cm), 전령표 10,000원
나. 전과원서(사서투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료와 함께 교무과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함.
다. 해당학과에 전형 방법 및 시간 등 확인한 후 접수증은

지참하고 학과별 전향에 응시함.

5. 유의사항

가. 전과자의 전과학과 취득학점은 전입학과의 교양 또는 자유선택학점으로만 인정됨.
나. 전과생은 제2전공 및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으며 또한 전과학과의 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다. 전과로 인한 등록금 차액은 바로 납부하거나 환불 받아야 함.

6. 학과별 선발인원 (서울캠퍼스 2학년)

학과	모집인원	학과	모집인원	학과	모집인원	학과	모집인원
영어	5	포르투갈어	1	아랍어	2	창의융합계	2
영어	3	네덜란드어	1	태국어	1	통역학	1
독일어	3	스페인어	1	베트남어	1	신문화연구	1
노어	2	중국어	3	인도어	1	불어교육	1
서반어	3	일본어	3	타이어	0	무역학	2
이탈리아	0	미얀마	0	인도어	0	경제학	2

<용인캠퍼스 2학년>

학과	모집인원	학과	모집인원	학과	모집인원	학과	모집인원
영어	1	포르투갈어	2	일본어	1	경영정보학	1
서반어	1	아랍어	2	아랍어	1	수학	1
영어	1	베트남어	1	태국어	1	정보통계학	1
영어	1	베트남어	1	태국어	1	정보통계학	1
영어	1	베트남어	1	태국어	1	정보통계학	1
영어	1	베트남어	1	태국어	1	정보통계학	1
영어	1	베트남어	1	태국어	1	정보통계학	1
영어	1	베트남어	1	태국어	1	정보통계학	1
영어	1	베트남어	1	태국어	1	정보통계학	1
영어	1	베트남어	1	태국어	1	정보통계학	1

1998. 1.

교무처장



사람 죽이는 정권

작년 3월 20일 대선자금공개를 외치던 조선대 류재열군이 시 위험장에서 사망. 안전대책 하나 없이 진행된 검거작전으로 아파트 13층에서 추락사한 광주대 김준배군. 김영삼 정권의 한총련 탈퇴압력과 수배 등에 힘들어 하다 자살한 우리 학교 옹인 배윤더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경환군.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김영삼 정권에서만 해도 65명이 넘는다. 좋은 세상 만들고자 하는 순수함 하나로 사지로 내몰려야 하는 열사들의 죽음, 이제 제발 마지막이길 바란다.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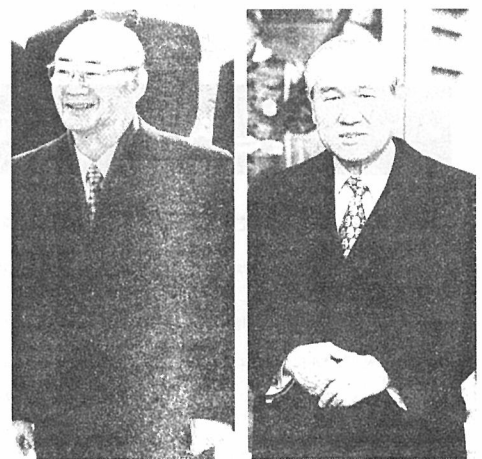
살인철거

동대문 구청이 광패들을 동원해 철거지역에 불을 질러 박순덕씨를 죽였다. 또 행동동 철거지역에서는 철거전문회사인 적준영역 광패들이 주민들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는 성폭행마저 서슴치 않았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 한칸을 원했을 뿐인 사람들을 죽이는 정권. 이것이 '문민정부' 이다.

새옹지마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지난 97년을 되짚어 보면 새옹지마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잇따른 열사들의 죽음, 더욱 거세어진 한총련 탄압, 학계·문화계에 몰아친 공안탄압 등은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정의의 왜곡을 가져왔다. 반면에 현직 대통령 아들들 구속시켰고 일당독재 50년을 평가하는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며 우리는 98년 새해를 맞았다. 본보는 지난 97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죽음과 희망이라는 두 테마로 나눠서 엮어보았다. 편집자

제작 사진부



암 뒤 바뀐 전·노서면

김영삼 정권은 국민화합을 외치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복권시켰다. 그러나 사면복권을 날 교도소 정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태도를 보았는가. 5·18 광주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변성의 말도 없이 마치 개신정군미당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은

80년, 정권을 침략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이들을 배후조종한 미국에 대한 문제, 이적당 총리서 없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안철수 문제를 체져두고 이들을 시판에... 전관료들에게도 맞지 않는다. 진정한 국민화합을 위해서, 안철수 시민이... 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변성은 전제로된...



와대에도 북풍이

대선때면 언제나 북풍이 몰아친다. 97년 15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여당의 표몰이를 위해 북풍은 불었다. 한총련과 각종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계·문화계도 북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 학교 이장희 교수가 '나는야, 통일 일세대'라는 책과 관련, 이적표현을 제작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된 일도 있었다. 사진은 '나는야, 통일 일세대' 책의 용공도서 매도에 대한 이장희 교수(사진 오른쪽)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희망!



편집자유권수호

외대교지는 매년 오르는 물가속에서 4년째 동결된 교지대금으로 또 다시 교지를 만들 순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 재정내에서 교지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요구했지만 학교당국은 대금인상을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리면서 한술 더 떠 엄연한 학생자치기구인 교지의 편집자유권을 침해하는 사안인 지도교수 선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지는 학생회와 연대하여 투쟁했고, 결국 교지 대금을 50% 인상하고 교지가 원하는 교수로 지도교수를 선임하기로 학교측과 합의해내는 성과를 남겼다.



새롭게 태어나는 총학생회

김영삼 정권은 올해 전권선거의 가장 위협적 세력인 한총련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 그러나 백만청년이 살아있는 한 한총련은 쓰러지지 않는다. 한총련은 각 단대, 총학생회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우리학교 총학생회도 학우들과 함께하며 가까운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생활 속의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은 육인배(가운데) 총학생회장의 당선사진.



김영삼은 하야하라

김영삼 정권의 출범초기 90%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한자리 수가 되는 현상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한총련은 김영삼 정권의 '원죄'라고 불리는 대선자금 문제,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인기부법 개악, 한보사태 등 부정부패로 얼룩진 김영삼 정권의 실정을 폭로하며 김영삼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국민들은 동의했고 결국 야당과 언론에서조차 '하야'를 요구했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는 등 입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실정을 심판하는 사법처리를 간파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선택

50년 일당독재 하에서 우리 민중의 삶은 어떠했나. 민주주의는 정체했고, 정경유착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로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중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자들에게 대한 심판인 것이다. 그동안의 실정으로 IMF 구제금융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우리 경제의 회생과 민주주의 발전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피업전야

학교당국은 식당운영에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며 기존의 학교경영에서 일대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대' 방식에 대해 학생식당 직원들은 식당이 값싼 비싸고 질 낮은 음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식생활에 책임을 다하는,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하는 행동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식당문제는 유보상태다. 식당직원들의 노력에 더불어 이제는 학생들이 동참해야 할 때다.

그해 가을 홍익학원

김 중 보 <서학·서반아어 3>

아이들이 오려면 종이학 두마리는 접은 시간
이중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시장은 평화롭다
다다다 삼의 넓이를 차지하려는 좌판들과
창문 안쪽에서 묵침 소리를 오래낸 그들은
조용히 싸우면서 먹살을 쥐었다 풀곤한다

시장통을 지나온 교복은 비린내 풍기고
수업이 지루하면 아이들은 지느러미를 핀다
검게처럼 짧은 매를 휘휘 휘두르며
내일의 시험이다 칼자국 같은 밑줄을 그어도
나는 아이들의 만화 속에 나온 불청객일 뿐
내 수면제를 샀던 약국집 딸 앞에서
살과 죽음의 이지선답힘 문제조차 풀지 못하고
그건 주입없는 땅으로 가는 거야 대충 일러줄

하원 뒤뜰에 입자없는 빈 발이 있다
주인이 돌보지 않아 불량품이 되기 쉬운 아이들과
쪽정이 더 많은 콩들도 퇴장하는 늦가을 무렵
약국집 딸은 가족하고 잡초만 무성해진 빈 땅
주인이 없으니까 누구나 주인이 되고 싶어
시험이 끝나면 날이면 종이 비행기를 부는 아이들

빈 발 언저리는 온통 하얀 공방이 되고
종이 비행기들 공중에 굿는 항로도 제각각이다
짧은 시간동안 허공에 떠 있는 무중력의 환희
어떤 꿈의 곡선을 그으며 그 아이는 날아갔는지
코삭인 공식으로도 계산하지 못한 그해 가을
신물지로 접은 비행기에 초라한 아이들의 명단과
날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바람들을 싣는다

퇴근 무렵 내가 접은 비행기는 곤두박질만 친다
제발 그러지말 말아달라고 접었던 비행기를 펼치면
다짐하듯 살아보자고 꼭꼭 눌러 접은 날들이
중심을 향해 수많은 항로를 담고 있다
종이 비행기, 접은 선들을 보충한 머리에 모으고
먼저 떠난 아이들의 공방을 향해 날아가다
허공에 살아있는 날들이 착륙 후 시간보다 짧을지라도

시 당선소감

김 중 보
<서학·서반아어 3>



지금 기억나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했던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때
나는 문득 멈추곤 합니다
당신들이 합성한 다급한 시간은 저만치 앞질러
어느새 저녁에 닿았다고 연락이 옵니다
나는 아직도 훨씬나 아침인데 말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람 애써 기억하려는 건
용서받을 게 남은 까닭입니다
바람 같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나무처럼 용서를 받기 위해
사과와 손질을 떨어뜨립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군요

바람의 길목엔 날마다 바람이 불고
용서받을 시간을 주지 않는 바람의 속도
바람은 단 한방도 나무에 머무는 적이 없습니다
기억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무색의 물을 이끌고 항해하는 망각의 땅
지금 기억나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용서받기 위해 시는 가지를 땀어냅니다
내 시의 가지로 직조하는 당신들의 이야기가
바람처럼 서성입니다 용서에 주십시오

시 심사평

신 경 립
<시인>



감정조절을 통한 '생활의 무게'가 보인다

"그해 가을 홍익학원"의 2편(김중보) '군대에서의 정맥운동'과 3편(류중건), '어머니의 웃기게에서'와 4편(조기환), '월의 가슴'과 7편(전희용)이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읽은 시들이다.

김중보의 시들은 구체성이 있어 우선 읽는 재미가 있다. 사실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활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소리이다. '그해 가을 홍익학원'은 체험이 모티브가 되었을 시로, 아이들과의 생활이 급박 눈에 보이는 듯하다. 종이 비행기의 메타포도 호소력을 갖는다. 감정의 적절한 조절도 시에 균형감을 부여하고 있다. 끝은 이리서서 새로운 심함이 없는 점은 흠이다. '자전거'도 형상화가 잘된 시다. 특히 '감아도 감아도 풀실이 보이지 않는 길/그대가 거세게 감아 담길 때면/패달의 호흡은 가벼이고' 같은 표현도 크게 돋보이는 대목이다. 평범한 생활에서 시를 이끌어내는 재주도 살만하다.

류중건의 시는 '군대에서의 정맥운동'이라는 모두의 시의 제목이 눈에 거슬린다. 끝은이들 시에는 노골적인 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는지 요즘 시에는 무슨 색소가 어울릴까 하는 시가 흔히 눈에 띄는 데는 반드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시에서 생명력을 더하고 성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 나 무탈 일이 못된다. 윗케나 엘리베이터의 시에서도 이런 류의 시는 얼마든지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의 시를 잘

읽어보면 우리나라 7류 유령시인들이 성행위나 성기를 소재로 한 시와는 판이하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새로운 내세우는 시인들의 색소 시가 오로지 흥미를 위한 것인 데 반하여 이들의 시는 그 색소를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사람을 발견하는 것인 터이다. 이점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고독한 토끼'는 젊은이들이 다들만한 소재이다. "고독한 토끼"의 비유도 적절하다.

조기환의 시는 너무 메마르고 밋밋하다. 시는 감정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못된다. 또 좋은 생각만 있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형상화되어야 비로소 시가 되는 것인데 이 메마름과 밋밋함은 그것이 안된 데서 오는 터이다.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연습을 시쓰기의 기본으로 삼는 훈련을 쌓으면 좋을 것 같다.

전희용의 시들은 말장난의 재미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것이 흠이다. 특히 모두의 시 '월의 가슴'에서의 "私月-事月-想月-夢月"의 이미지의 변화는 개고 이상의 재미를 주지 못한다. '삶의 현저성'의 어설픈 색감원시도 시의 맛을 반감한다. 하지만 '오기는 이야기 속에 나' '친구라는 글귀속에는'을 보면 다분히 시적 재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극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알림 외대 문학상·학술상 심사결과

34회 외대문학상

- 시
당선작-김중보(서학·서반아어 3) '그해 가을 홍익학원'
가 작-류중건(인문·사학 92) '고독한 토끼'
- 소설
당선작-조진형(문학·중국어 3) '피라'
가 작-김중보(서학·서반아어 3) '목동주요보'
- 수필
당선작-조진형(동구·체코 1) '살을 뜯어낸 손들의 기억'
가 작-김중보
- 비평
당선작-강지현(서학·불어 3) '마르셀 프루스트의 향연'에 나타난 도스토예프스키의 인간'에 대한 사유
가 작-김중보(문학·법학 1) '신세기 에픽시퀀스'에 대한 비평'

14회 외대학술상

- 사회과학
당선작-최은석(사회·행정 91)
"김영삼장관의 정부실정에 대한 소고"
가 작-김민범(법·법학 3)
"법제도 정비에 따른 법 제도의 변화"
양정민(경영·경영 95)
"북한의 경제개혁 시도와 우리의 대응전략"
- 자연과학
당선작-없음
가 작-김민범(서학·독일어 94)
"물리학적 본래와 차이에 대한 이해"

12

062 외대학보

외대학보 063

066 외대학보

공기중에서 취급하는 분해에 의한 물산분해가 있어야 할 것.
나. 사용된 대기중에서의 물질재해 가능성 및 사용용 토양중에서의 분해에 대한 이유로 광분해성 플라스틱은 대상에서 제외.
다. 폴리머와 분해의 분해된 것은 분해불가능 재, 리. 천연고분자와 styrene, 열화비닐 등의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graph와 재.
나. 물에 녹은 후 확실한 분해가 미비한 수용성 수지 재의(2차) 환경 오염의 가능성.
나. 미생물 생장에 의한 플라스틱에의 선행기술이 있으므로 제외.
나. 생분해성, 안전성, 성형성, 물성의 향상 및 가격을 고려하여 실용화를 앞당김.
이렇게 설계되고 합성된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는 우수한 생분해성을 보이나, 일반적으로 용점이 낮고, 열안정성 및 저온에서 용으로 인해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저온으로 인한 성형성 불량을 개선하여 기존 PE 정도의 용점을 갖도록 설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glycol과 diacid의 조합에 의한 용점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연구 결과 및 전망

분해성수지라는 것이 처음 일반에게 소개되었을 때, 환경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으나, 실제로는 Maker들의 주장과는 달리 분해가 의식스러운 제품들도 유통되고, 점차 많은 소비자, 환경보호주의자들에게 심판과 혼란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분해성 플라스틱이 환경을 위한 페플라스틱 처리방법의 한 분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용어의 정, 평가방법이 확립되고, 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mechanism 또한 확실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ISO의 규격 제정 및 이를 따를 각국의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환경 보전의 국제적 조류에 부치기 않도록 국내 각업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6. 광분해성 Plastic Cyporene

(1) 분해성 고분자의 종류

일반적으로 빛에 의해 분해되거나 미생물에 흡수되어 분해되는 고분자를 "분해성 고분자"라 한다. 분해성 플라스틱은 분해기구에 의해 ①생분해성 플라스틱 ②광분해성 플라스틱 ③생광분해성 플라스틱 등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원리

1)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개요

광분해성 플라스틱은 태양광선의 자외선 에너지를 이용하여 고분자 사슬을 파괴하여 고분자의 물리적 성질을 저하시키며 분자량이 작아져서 미생물에 의해 소화/흡수되어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최근 광분해성 플라스틱이 연구개발되고 있는데 이미 실용화된 기술은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천이 금속유를 첨가하여 분해반응을 유도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중합시 고분자 사슬에 광감응기를 도입시켜 광분해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2) 플라스틱의 분해 가능성

모든 플라스틱은 햇빛이나 대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분해가 된다. 분해반응의 속도가 완만하고 최종단계까지 분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의 물성은 서서히 저하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미생물에 의해 소화 가능한 정도까지 분해를 과할 수 있다면, 페플라스틱에 의한 환경문제(환경정화)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빛과 에너지의 관계

일반적으로 빛과 에너지의 관계는 파장 λ가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고분자 사슬의 탄소결합(C-C)을 파괴하기에는 295~320nm의 파장대의 자외선이 80~85kcal/mole의 에너지를 가지므로 파괴적이다.

$$E = hc/\lambda$$

$$h = \text{Planck's Constant (플랑크 상수)}$$

$$\nu = \text{Frequency (주파수)}$$

$$c = \text{Light Speed (광속)} = 3 \times 10^{10} \text{ km/sec}$$

$$\lambda = \text{Wave Length (파장)}$$

$$E_a = \text{Activation Energy (활성 에너지)}$$

$$E_p = \text{Photolysis (광분해)}$$

우산과 플라스틱은 쉽게 산화되지 않으며, 빛에 의해 화학반응(Photolysis)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플라스틱에는 색소 혹은 가공 중에 흡입되는 불순물이거나 촉매제, 조제제 또는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 및 이차원형 가지(branch), 카복시기(carboxyl)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산화제에 의해 분해가 촉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물질들은 빛이나 열 등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 고분자에 산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불순물을 "Chromophoric Group"라고 부른다.

고분자 특히 polyethylene이나 polypropylene 등은 다량의 분자에 의해 분해되기 어렵다.

4) 반응 개시 단계(Initiation Step)

라디칼(Radical)의 생성 과정: 내외부적으로 존재하는 Chromophoric Group이 에너지(빛, 열, 열)를 흡수하여 분자간 라디칼(Low Molecular Radical R·)과 고분자 라디칼(Polymer Radical P·)을 생성한다.

5) 에너지 전달 과정: Chromophoric Group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가 고분자 Chain에 전달되어 자유라디칼을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고분자 사슬에 산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불순물을 "Chromophoric Group"라고 부른다.

나. 에너지 전달 과정: Chromophoric Group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가 화학 결합에 축적된다. 따라서 자유라디칼로 전환, 해리된다.

6) 산화 진행 단계(Propagation Step: Chain Reaction)

나. 생성된 Radical(P·, R·)이 Chain Reaction(연속 반응)으로 고분자의 수소를 원자를 분리.

따라서 고분자 라디칼(Polymer Radical: P·)을 생성시킨다.

나. 생성된 고분자 라디칼이 주위의 산소(O2)와 반응(결합)하여 고분자 과산화물 라디칼(Polymeric peroxy radical: POO·)을 생성한다.

나. 생성된 고분자 Peroxy radical: POO·이 인접한 고분자 사슬의 일부에서 수소를 빼앗아 고분자 라디칼(P·)을 생성하고 자신은 고분자-산화물(Polymer Hydroxy Group)로 전환된다.

나. Polymer hydroxy group은 자외선(ultraviolet)에 의해 결합이 분해(파괴)되어 Polymer Alkyl-Oxy Group(PO·), Hydroxyl radical(·OH), Polymeralkyl-oxo-poroxyl radical(POO·)을 생성한다.

나. Polymer alkoxy group(고분자 산화물)은 Radical에 의해 자기 자신이나 인접한 다른 고분자의 수소를 탈취하여 Hydroxy group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고분자 라디칼을 생성한다.



나. Polymer alkoxy Radical들의 광분해반응(광분해, photolysis)은 β-scission(사슬단)반응에 의해 알데하이드(Aldehyde)와 고분자 산화물(oxidation)을 생성한다.

7) 반응 완료 단계(Termination Step)

나. 자유라디칼(Free radical: P·, R·, HO·, HOO·, PO·, POO·)들간의 반응에 의해 반응이 종료되며, 새로운 고분자가 생성된다.

나. 연속적으로 반응이 고분자 전체에 전달되면 분자량이 저하된다. (분해 진행) 또는 분해에 의한 부가중합반응에 의해 더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가 생성되거나, 가교된다.

나. 산화-분해 반응의 종류 및 원리

따라서 위의 3단계 반응중 1단계와 2단계 반응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한다면 고분자는 분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생성되는 물질은 산화물로 ROH 혹은 ROOH 및 H2O와 CO2일 것이므로 만일 충분히 반응이 진행되어 산화물의 분자량이 1000가량의 물질로 전환된다면 분해에 실패하여 역시 H2O(X)와 CO2(이산화탄소)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분자 부가반응이 생길지 않도록 끊임없이 라디칼을 생성시켜서 하여 Radical들이 플라스티드와 반응하여 플라스틱을 산화/분해시킬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나. 플라스틱의 산화에 의한 단계적 분해 반응

광분해성 플라스틱은 다량에 흡수하는 분해식처럼 단계적으로 분해반응이 진행되며, 일부 반응에 따라 산화물(Carboxyl & Carboxyl) 그룹 등이 발생하며, 순차적으로도 산화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또한 분자량이 점차로 감소하게 된다.

8)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미생물 분해 기구

광분해에 의한 분해산물의 분자량이 500이하로 낮아지는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광분해산물은 카복시그룹(COOH)을 많이 포함한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며 미생물에 의해 산화/소화되기에 적합한 분자의 형태가 변형된다. 즉 Carboxyl(카복시) 그룹 혹은 이들의 Derivatives(유도체)로 전환된다.

분해물의 분자량은 평균적으로 대략 100~700 가량이며, 이것들은 수용성이다. 고분자의 분해에 있어서 물과 산소 역시 그 기여도가 크다. 분해과정에서 크게 작용한다.

고분자 분해에 Enzyme이 산소를 유도하여 Superoxide를 생성시키고, Superoxide가 산소와 Carboxyl을 고분자에서 생성한다. 이 단계가 연속적으로 순환, 진행됨에 따라 생성된 효소는 분자 사슬로 이동하고, 미생물이 효소를 섭취하여 점차로 분해되도록 전환된다.

(3) 분해성 플라스틱의 비교

1)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종류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광분해성을 띠지 않으며 매우 빠르며, 안정성에서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광분해성은 쉽게 파괴되며 고분자 사슬의 분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광분해성 고분자 광분해성 플라스틱들은 대량 분해에 의한 분해가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이 단계가 연속적으로 순환, 진행됨에 따라 생성된 효소는 분자 사슬로 이동하고, 미생물이 효소를 섭취하여 점차로 분해되도록 전환된다.

2)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종류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광분해성을 띠지 않으며 매우 빠르며, 안정성에서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광분해성은 쉽게 파괴되며 고분자 사슬의 분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광분해성 고분자 광분해성 플라스틱들은 대량 분해에 의한 분해가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이 단계가 연속적으로 순환, 진행됨에 따라 생성된 효소는 분자 사슬로 이동하고, 미생물이 효소를 섭취하여 점차로 분해되도록 전환된다.

①참가제형 광분해성 플라스틱 참가제형은 광분해성과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비교적 우수한 성능 특성을 가진 수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분해시키기 위해 참가되는 많은 분해용 첨가제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유해하거나 불안정한 물질이 대부분이다.

(4) Cyporene의 분해기구

①Cyporene의 개요(Sort-Gilad System) Cyporene의 광분해에 사용되는 첨가제들은 자외선 안정제 및 열안정제, 광분해제로 작용해 고분자의 기계적, 물리적 특성 Protection-Destruction Mechanism(물분해-분해)과 기구에 의해 작용한다. 빛 감지, 저장부터 자외선 Energy가 충분히 축적되면, 이 부분은 시간차지처럼, 분해 예정시간까지의 안정제 역할을 하며, Plastic의 분해와 물성 저하를 방지한다. 예정시간 이후에는 첨가제의 파괴로 인하여 축적되었던 Energy와, 분해된 첨가제와 산화물들이 되어 논의하는 순서에 따라 라디칼을 생성시키고, 라디칼에 의해 고분자 사슬이 공격당하여 고분자 산화물 에 따라 Plastic이 파괴, 분해된다.

②Cyporene의 분해 단계

Cyporene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분해가 진행된다.

나. 자외선(UV)에 의해 감광되어 자유라디칼(Free

전분 참가제형이나 금속화합물 참가제형이 가격이 싸고 현재 참가제형은 광분해성과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비교적 우수한 성능 특성을 가진 수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분해시키기 위해 참가되는 많은 분해용 첨가제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유해하거나 불안정한 물질이 대부분이다.

8.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은 고분자 소재로 사용되는 재활용(material recycling), 연소를 통하여 열을 회수하는 재활용(thermally recycling), 화학적 처리를 통한 화학 원료로의 재활용(chemical recycl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재활용 방법은 플라스틱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은 환경 보호는 물론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를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활용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수거와 운송 체계의 확립, 합리적이고 경제성 있는 재활용 공정 개발, 재활용용 용도 개발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9. 페플라스틱의 소재로서의 재활용

국내의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93년 기준으로 600만톤/년 이상이 되고 이는 세계 4위에 해당한다. 페플라스틱은 다른 금속, 지류, 목재 등의 폐품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절히 후처리 기술, 공업, 시설 등의 미비로 대량 폐기되고 있다. 페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재생 플라스틱 형태, 즉 재활용소재의 재활용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많은 경비와 노력을 소모하여 제조된 소재를 소각, 매립, 자연분해를 할 필요없이 직접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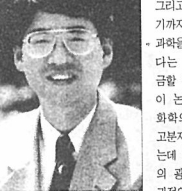
분리수거가 어려운 페플라스틱은 2차 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조건에서 소각하여 열에너지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페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소규모일 때는 비교적 간단한 기구로 외국에서 도입 후 재해고 있는 국내에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감안하면 대규모로 처리하기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페플라스틱을 분해하여 화학원료로 회수하는 방법이다. 열을 가하면 화학적으로 분해되기 쉬운 이소프렌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해하여는 폴리올레핀에서 합성원료를 제조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폴리에스터, 우레탄수지 등을 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연구가 일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적인 처리 방법은 아직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실용화하기까지 많은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페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분해성, 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소각기와 같이 현실적으로 분리, 선별수거가 어려운 부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과학

심사평



김진부
(화학과 교수)

자연과학

당선소감



김진부
(서양·독어 94)

비록 전공은 독학하고 있었지만, 평소 자연과학, 특히 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주위의 여러 친구들과 생생한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하여 완성해 보았다.

당첨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에 대하여 생생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출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낸 것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느낀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한미 감과, 신나게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비교적 어려운 지식을 좀 더 쉽게 정리하여 실재 실용에 맞게 정리해 보았다.

이제, 이 글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한미 감과, 신나게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글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한미 감과, 신나게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글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한미 감과, 신나게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글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한미 감과, 신나게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외대 새내기들의 1년, 어떻게 보낼까~?



대동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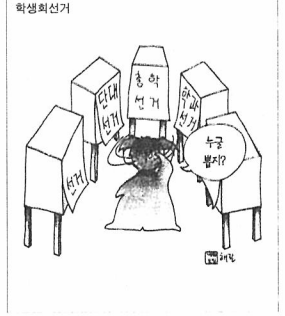
어름농활



범민족대회



세계민속학술축제



학생회선거

2월

입학의 기쁨과 '고민탈출'의 해방감에 들떠있는 새내기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행사는 바로 새내기세미나(대동재)입니다. 세미나에는 대부분의 새내기들은 물론, 선배들도 아주 많이 오기 때문에 대화할 기회가 많은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또 과거의 한 아사시(아사시)는 세미나 못가서 결국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말할 때 후회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모두 한데 어우러져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기자랑하기까지 며칠간 공동체생활도 해보는거죠. 또 고등학교때까지는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도 조금 알게될 수도 있고요. 엄청 너무 알찬 자리니까 빠지면 후회합니다.

3월

대학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첫 대학생활. 그러나 고등학교때와 너무도 다른 분위기죠? 모르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또 서로 새내기들을 데리고 다니고 하는 여러 인사사들이 동아리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면서 어찌 못할 것 같고 고민도 하고, 그렇다고 수업도 소홀히 해서 안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FF)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4월에는 서울배움터의 4.19기념 사진제와 용인배움

터의 마라톤대회를 놓치지 마세요. 역사교과사에는 아주 조금밖에 안나오지만 4.19는 이승만대통령에게 반하여 전 국민이 절거린, 현대사에선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부당한 이승만 정권에 맞서 싸운 용감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자 마련된 행사니까 배우는 점도 많을테고 또 과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고요. 사진제까지 대회는 이문동에서 4.197면까지 있는 수유리(고등학교)로부터 자주있던 새내기들 기간내 총 하세요)까지 공짜로 전거를 타고간후 참여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되고 마라톤 대회는 드넓은 용인의 학생회관~모험을 왕복해야 합니다. 교수님께 말씀 잘 드리면 수업도 빠주시니까 범생인 새기들도 걱정 않고 참가할 수 있습니다.

5월

5월은 대학의 1년 중 가장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이달에는요, 새내기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대동제가 있어요. 이때는 주춤, 물풍선 던지기 등의 신상한 행사 이외에도 여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TV로만 보던 대학 대동제, 직접 느껴보고, 촉매가 아니라 대동제에 오, 크게(하) 하나(하)는 뜻이 있겠죠? 또 이달에는 백만 대학생의 축제인 5월, 바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대학생들이 모여 2박 3일동안 강연도 듣고, 춤도 추고, 노래도 배우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꼭 참여하세요~

마지막으로 5월하면 잊을 수 없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입니다. 말할수록 모순 참배 한번만 하고 나면 저절로 속연해지고 눈물이 똑똑 흐릅니다.

6월

4월에 보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6월에 보는 기말고사입니다. 고등학교때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마 전년의 대중화인듯 했는데요. 별희한 밤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동아리에서는 전년도 말자는 켜켜이 안을 매년 벌어오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의 문제겠죠. 과거의 새내기들은 노는 게 정신이 팔려서 공부에 안하던 모습이 많았는데 2년전부터는 학부·계열제나, 취업난이든 뭐든 해서 새기들의 학구열도 상당히 대단하고, 동등하고(하)이라는 인타개도 맞고 돌리고, 하(하)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여름방학에 돌입하게 됩니다.

7월

여름방학 계획에 여름농활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닐지. 농활은 TV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논에서 장난이나 치는 시시한 행사가 아닙니다. 농활이라는 말도 '농촌봉사활동'이 아닌 '농민학생활동'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농촌에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농민분들과 연대하고 그분들의 삶을 느끼기 위해 가는거거든요. 아농반, 청소년반, 여농반, 청장년반 등으로 나누어 활동하는 분반활동이랄까 농활의 꽃이지요. 특히 아농반은 파병이 많이 마지않아 어찌나 재미있는지.

편지도 많이 오구요. 어르신들은 농촌의 현실이나 정부의 상생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도 해요. 마을마다 무슨 농사를 주로 짓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이하는 작업은 피클입니다. 피는 정말 자칫하지 않게 말이요. 나중에는 길가의 풀만봐도 무심히 볼게 된다고요. 맨 마지막날 하는 마을잔치도 그렇고 과시합들이랑 며칠간 같이 생활하는 것 등 농활은 힘들지만 헤어날 수 없는 재미와 기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백만 대학생의 축제라 또 한 번 열려요. 그것은 바로 범민족대회라고 하는데요. 매년 우리 대학생들은 북한의 대학생들과 판문점에서 만나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일구어 합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에서 하기를 해주시 않아 남과 북이 따로 행사를 해요. 우리의 통일열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인데 간단한 교류조차도 금지하고 인권탄압의 일이 되는 악법 중 악법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학교에 모여 통일에 관한 강연, 우리의 역할 등을 토론하는 행사들이 열리고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와 춤도 배워요. 아주 재미있었죠?

10월

서울배움터와 용인배움터에서는 매년 반갑카미 세계민속학술축제(세민제), 세계민속학술축제(세민제)이 열려

요. 각 국의 민속, 춤, 원예도, 풍물을 소개하고요. 춤과 원예노래패와 공연 등 아주 볼거리들이 많은 우리학교만의 특별한 행사이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른계열 중심의 행사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비어있는 주말도 소의감을 느끼지 않을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면 열광할 기쁨이 남을 행사도 됩니다.

11월

1년까지 생활하면서 학생회는 것의 존재를 피부로 처음 느끼게 될텐데 11월에는 바로 그 학생회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과학생회선거는 10월 말까지는 완료되는 게 보통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과대학총회와 총학생회선거는 반드시 11월 중에 치러지게 돼있어요.

투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새기들이 있다면 더욱더 투표해서야 해요. 왜? 학생회를 처음에 만들었던 게 학생들과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학생이요, 학생회 활동이 맘에 안드신다면 그대 대한 평가를 투표로 통해서 하면 되니까요.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것도 주동적이고 주체적인 새기들의 아름다운 모습일테니까요. 외대의 문제와 한국의 문제를 한번씩 생각해 보고요 각 후보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눈여겨보세요.

그림 - 해갈
정리 - 대학부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순조로운 대학생활 위한 학교안내

이 정돈 알아야 대학생생활합니다



이 정돈 두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의 총·부학생회장님입니다.

총학생회 57년 격화 운동권만큼 때론 어려웠지만 새기들이 57년 고교생활을 버려서도 됩니다. 총학생회는 무슨 운동권만의 집단이 아니라 학생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학생들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곳이지요. 이 분들도 지난 11월 있었던 선거에서 7300학생들이 직접 뽑은 우리들의 대표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불편한 자리에서 내내외에 노력을 모으는 곳입니다. 고교고 개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등록금문제를 예로 들어보더라도 정부위원의 재정보조나 재단의 무자비한 학비를 예제만 부담을 지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그러니까 총학생회는 정부나 재단에 우리들의 요구를 하고 권제되지 않으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아시겠죠? 참. 여자새기들 주목! 부총학생회장님! 예안이 없는데도 측근이 곁을 지키고.



총학생회는 여자들만 모여있는 곳~남자를 적으로 삼고 꾸짖는단?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새기 남학생들은 물론 잘못.

총학생회는 학내에서의 여성차별, 성폭행 등에 관한 신고 및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권신장을 위한 행사도 마련하는 여성운동 단체입니다. 그 유명한 정선대 학내에서 요구금지에도 맨날 맨날 참가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녀, 여남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므로 남학생들도 언제든지 총학생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은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라고 해도 남학생 새기들이 줄을 설 것 같군요. 올해의 총학생회는 성폭력 방지 학회를 제정할 계획이고, 다양한 강사사업과 소의들을 많은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새기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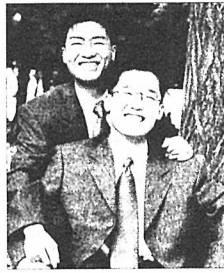
학원 3주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학생, 직원, 교수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원 3주제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학생대표자회의(학생)**입니다. 생활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여기서 학생조합원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생활학생위원회의 인데요. 여러분도 학원의 가입비로 생활학생위원회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에겐 각종 혜택이 주어지지요.

그럼 생활학생위원회의 조합원만 위한 단체인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식당이나 매점, 커피자판기 등의 질적향상을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사원의 주민권인 반기원 생활 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학생위원회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참! 생활에서는 물어보면 물건도 찾아줍니다. 아무리 생활장비를 직접 만들고 싶어도 일부러 물건을 물어버리지는 마세요.



"우리학교 **보조실**은 고등학교 양호실과 같이 단순한 약 주는 곳이 아니라 외대 가족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 진단,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목소리를 자랑하는 보조실 관리자인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할 때는 가서 안도 받아보고 건강진단도 받아보고, 그러세요. 그리고 다쳐서 가면 보건실 선생님이 없거나 정성서로 치료해주시는 데요.

현재 우리학교 보건실은 각 배움터 학생회관 1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1학기마다 한 번씩 간염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해요. 또 신입생 신체검사와 더불어 후속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새기들이 평소에도 꼭 한 번씩 들려 볼만한 곳입니다. 특히 매년 봄봄에 찾아갈때마다 보건실 선생님의 따뜻한 보려는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우리들의 마음까지 파스칼로 감싸주는 듯 합니다.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73개 동아리들의 연합체로, 동아리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거나 행사를 준비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동아리연합회(동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라며 멋있는 웃음을 짓는 사단 총무는 머리의 주인공. 바로 15대 동연회장 이상진(서울·불어 3)입니다.

매년 동아리 홍보 행사인 새기 한마당을 통해 새기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지요. 새기들이라면 동아리활동에는 조금씩 다 욕심을 가지고 있었을텐데 동연은 그 동아리활동들을 올바른 대학문화로 선도하고 불편한 점은 개선하는 것이랍니다.

"대학에서 대학생활은 문화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동아리"라고 신념하고 있는 동연. 이번에도 많은 학생을 배워간 학생회나 학내 언론사로부터 많은 미움의 눈길을 받고 있는가 봅니다.



새기들이 대학에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 아마 수강신청부터 학생회 재발급 등.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처리할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알아두세요. 특히 사회대·성신대·법대 새기들이라면요.

이 늘어난 지대의 남자는 바로 10월 3년동 학생들(위에서 언급한 새 단체)을 책임지는 **교학**의 김병진(성신대)입니다. 교학과는 보통, 단과대마다 한바퀴 있어서 수강신청업무, 학생상담, 장학선발 및 추천, 유교행정관련업무, 성적정정 등 학생들이 일상과 직접 연결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께 잘 보여놓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워낙 자질만 업무가 많이 완벽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 김병진 선생님의 힘(?)이라고 하니 너무 모르고 가서 물어보면 예외에 어긋날 것 같네요. 또, 이렇게 최고 학생분에게 애지중애는 말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면 더 좋겠죠?